풍성한 날에도 잊지 않는 감사

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의 감사는 자라나고 있는가?



Gemini Notebook



1863년의 역설:
절망 속에서 찾아낸 풍요

- 1863년 남북전쟁의 한가운데, 매일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전사자의 소식이 들려오던 해.
- 링컨 대통령은 '감사의 날'을 선포하며 놀라운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는 하늘이 주신 가장 좋은 복을 받아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너무 교만해졌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
링컨이 가장 먼저 통회한 것은,
'가장 좋은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만'이었습니다.

Gemini Notebook

감사의 소실점

우리는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가 절로 넘칠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다릅니다.
감사는 가진 것이 없을 때보다,
가진 것이 많아질 때
더 쉽게 사라집니다.

Gemini Notebook

40년 광야의 끝, 모세의 마지막 염려

-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마지막 설교(신명기)**를 전합니다.
- 그의 가장 큰 염려는 이스라엘의 **'결핍'**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풍요'**였습니다.





Gemini Notebook

배고픈 자의 기도 vs 배부른 자의 감사





아무것도 없을 때	상태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기도가 간절해진다	반응	감사가 식고 기도가 느슨해진다
하늘을 바라본다	시선	내 곳간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Gemini Notebook



방어선 1: 배부를 때 일부러 찬송하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옥토를 네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신명기 8:10)

- 형편이 괜찮을 때, 배가 부를 때, 바로 그 자리가 찬송해야 할 자리입니다.
- 광야를 지난 사람들에게 약속된 모자람 없는 땅.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일구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Gemini Notebook



식탁에서 지켜내는 감사의 울타리

- 한 끼의 밥상에는 농부의 땀, 해와 비, 흙,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 유대인들은 식사를 마치고 배가 부른 뒤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 먹기 전의 기도는 쉽지만, 배부른 뒤의 감사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2)

Gemini Notebook

방어선 2:
마음이 높아져 잊지 않도록 삼가라

>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 8:13-14)

- 하나님은 집과 가축과 재물이 늘어나는 '풍성함' 자체를 나쁘다 하지 않으십니다.
- 진짜 문제는 좋은 것들이 쌓여갈 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 통장의 잔고는 늘어나는데 감사가 줄어든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Gemini Notebook

배부름이 가장 큰 위험으로 바뀌는 순간

진실



착각



- 잊어버림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라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다 해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배부름은 축복에서 독으로 변합니다.

Gemini Notebook



나눔: 내 것이 아님을 '몸'으로 기억하는 장치

- 마음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감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흐려집니다.
- 받은 것의 일부를 떼어 이웃과 나누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
- 그것은 이 풍성함이 내 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몸으로 인정하고 기억하는 영적 연습입니다.

Gemini Notebook



방어선 3: 광야의 만나를 기억하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나니
(신명기 8:15-16)

- 과거의 가난했던 시절을 그저 추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던 그 절망의 땅에서, 매일 나를 먹이시고 살리셨던 분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엄숙한 당부입니다.

Gemini Notebook

축적이 아닌 의존



- 우리는 **십 년 치**를 쌓아 두어야 비로소 안심하는 **불안의 시대**를 삽니다.
- 그러나 **만나는** 마음대로 쌓아둘 수 없는, 다음 날이면 **썩어버리는 양식**이었습니다.
- 만나는 배를 채우는 빵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준 **영적 교과서**였습니다.

Gemini Notebook



광야의 진짜 목적: 마침내 주어지는 복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16)

광야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마침내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한 길입니다.

Gemini Notebook



오늘, 우리의 광야를 돌아보며

-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울던 밤,
  일자리를 잃고 막막했던 우리 각자의 광야들.
- 그때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을
  온전히 기억한다면,
- 오늘 내 식탁에 놓인 평범한 밥 한 그릇이
  새삼 눈물겹도록 귀해집니다.

Gemini Notebook

풍성한 날에도 잊지 않는 늘 찬송

과거의 광야를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의 거대한 풍성함 앞에서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풍성한 날에도 잊지 않고 늘 찬송하는, 복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Gemini Notebook